

배포 일시	2022. 12. 21.(수)		
담당 부서	항공정책관 도심항공정책팀	책임자	팀 장 최승욱 (044-201-4197)
		담당자	사무관 조재익 (044-201-4199) 주무관 손달현 (044-201-4198)
보도일시	※ 통신·방송·인터넷은 12. 21.(수) 16:00 이후 보도 가능		

‘25년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 첫 걸음 21일 UTK 제5회 본 협의체 회의 개최 - 내년부터 시작되는 실증사업(그랜드 챌린지) 추진 방향 제시 -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25년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를 실현하기 위해 내년부터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실증사업(그랜드챌린지)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는 12월 21일(수) 오후 2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강희업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상임위원 주재로 UAM 분야 민·관·학·연 47개 기관이 참여하는 ‘UAM Team Korea(UTK)* 제5회 본 협의체’ 회의를 개최하였다.
- 이번 회의에서는 실증사업(그랜드챌린지) 추진계획을 심의하고, 향후 UAM 정책 방향 등을 논의하였다.
 - * 민·관·학·연 47개 기관이 함께하는 정책공동체로 K-UAM 로드맵을 공동 이행하며, 주요 정책을 공유·논의·보완/수정하고 UAM 관련 국내외 이슈 및 동향 분석

< UAM Team Korea 제5회 본 협의체 개요 >

- (시간/장소) '21.12.21.(수) 14:00~15:10, 한국항공우주연구원
- (주요내용) ① K-UAM 그랜드챌린지 추진계획(심의) ② UAM 정책 추진현황(보고) ③ UTK 공역실무분과 활동성과 등(보고) ④ UTK 스마트시티 실무분과 활동 성과 등(보고) 총 4건
- (참석) ▪ 국토부(UAM Team Korea 위원장), 국방부, 과기부 등 중앙부처
 - (업계) 현대차, 한화시스템, 현대건설, SKT 등, (학계) 건국대, 극동대 등
 - (지자체) 부산광역시, 경기도, 충북도 등, (공공기관) 항공우주연구원, 항공안전기술원 등
- * UTK 기관 외 그랜드챌린지 참여를 신청한 카카오모빌리티 등 20여개 기관도 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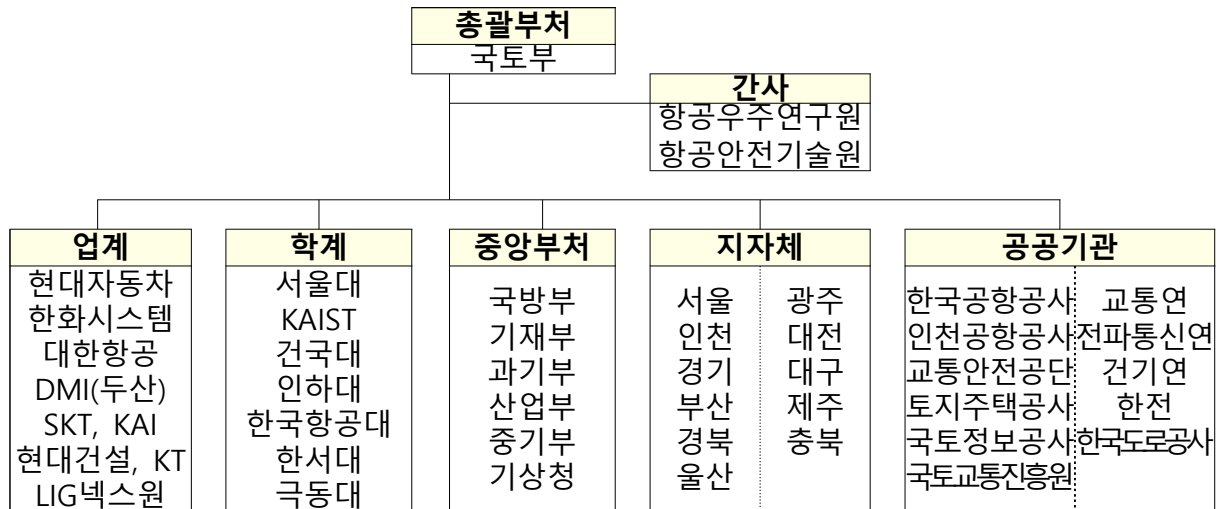
- UTK 본 협의체에서 의결된 실증사업(그랜드챌린지)은 ‘25년 상용화를 위하여 UAM 안전성을 검증하고 국내 여건에 맞는 운용개념 및 기술기준 등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
- 실증사업(그랜드챌린지) 1단계*는 참여를 신청한 6개 컨소시엄 모두**를 대상으로 전남 고흥에서 진행되며, 그간 민간의 요구를 반영하여 기존 8개월(‘23.8~’24.3)에서 17개월(‘23.8~’24.12)로 실증기간을 대폭 연장한다.
 - * 「국가성능비행시험장(전남 고흥)」에서 UAM 기체와 통신체계 안전성 확인, 버티포트 등 인프라, 운용시나리오(정상·비정상) 등 통합운용성 테스트
 - ** 기체제작(현대·한화), 교통관리(SKT·KT·LG-U⁺), 버티포트(카카오·공항공사·건설사) 등 6개 컨소시엄 등 국내외 55개 기관이 참여(’22.2월~5월)
- 실증사업(그랜드챌린지) 2단계는 1단계 통과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24년 7월부터’25년 6월까지 실제 준도심·도심 환경(수도권)에서 조종사가 탑승하여 진행할 예정이다.
- 아울러, 조속한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 지원을 위해 실증·시범사업에 규제특례를 적용하는 제정법 추진현황 및 초기 시범사업(관광·공공용) UAM 운용개념 정립, UAM 특화형 스마트시티 계획 가이드라인 마련 방안 등도 논의되었다.
- 강희업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상임위원은 “UAM Team Korea 참여기관들의 다양한 노력으로 민간 중심의 UAM 산업 생태계가 조성되고 있다”면서,
 - 정부는 “규제 특례, 인프라 등 정책적·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고 내년부터 시작되는 실증을 통해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이 세계시장을 선도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 한다고 밝혔다.

참고1

UAM Team Korea 개요

- (목적) K-UAM로드맵의 공동 이행, 신규과제의 발굴 및 주요시장·기술 동향 등을 논의하는 산학연관 정책공동체로 출범
- (본 협의체) 국토부 2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참여업체·기관의 임원·간부급이 참석하는 본위원회는 의사결정 기능 위주 개최(연 1~2회)
- (실무위원회) 실무논의는 과장급 주재로 상시 개최(최소 분기별 1회)하되, 개최시기·주제별로 참여기관·업체 다각화
 - 생태계 저변 확대 등을 위해 정식 참여기관 외 사업계획이 있고 참여를 원하는 기관은 초청기관으로 참여(본 협의체는 미참여)

【UAM Team Korea 참여기관 및 구성도】



* (초청기관) 카카오모빌리티, 보잉 코리아, 다쏘시스템, 퍼스텍, 한컴위드, 파이버프로,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항공우주산학융합원, 무역협회, 산업은행, UNIST, 경상대, 강원, 경남, 전남, 충남, 전북, 세종, 행복청, 해양수산부, LG유플러스, 롯데, 고양시, 경찰청 등

- (역할) 주체별 역할을 구분하되 추진과정에서 상호역할 조정 가능
 - (총괄) 국토부는 UAM 추진현황을 총괄 관리하고, 주요이슈별 참여기관·업체 이해관계 총괄 조정 및 법령 제·개정과 예산사업 추진
 - (간사) 협의체 소집, 참여기관·업체의 건의사항 상시 접수, 회의별 상정안건 마련 및 협의체 운영현황 관리 등
 - (참여기관) UAM 관련 추진상황 및 토의사항 공유, 기관·업체별 역할에 따라 소관과제 이행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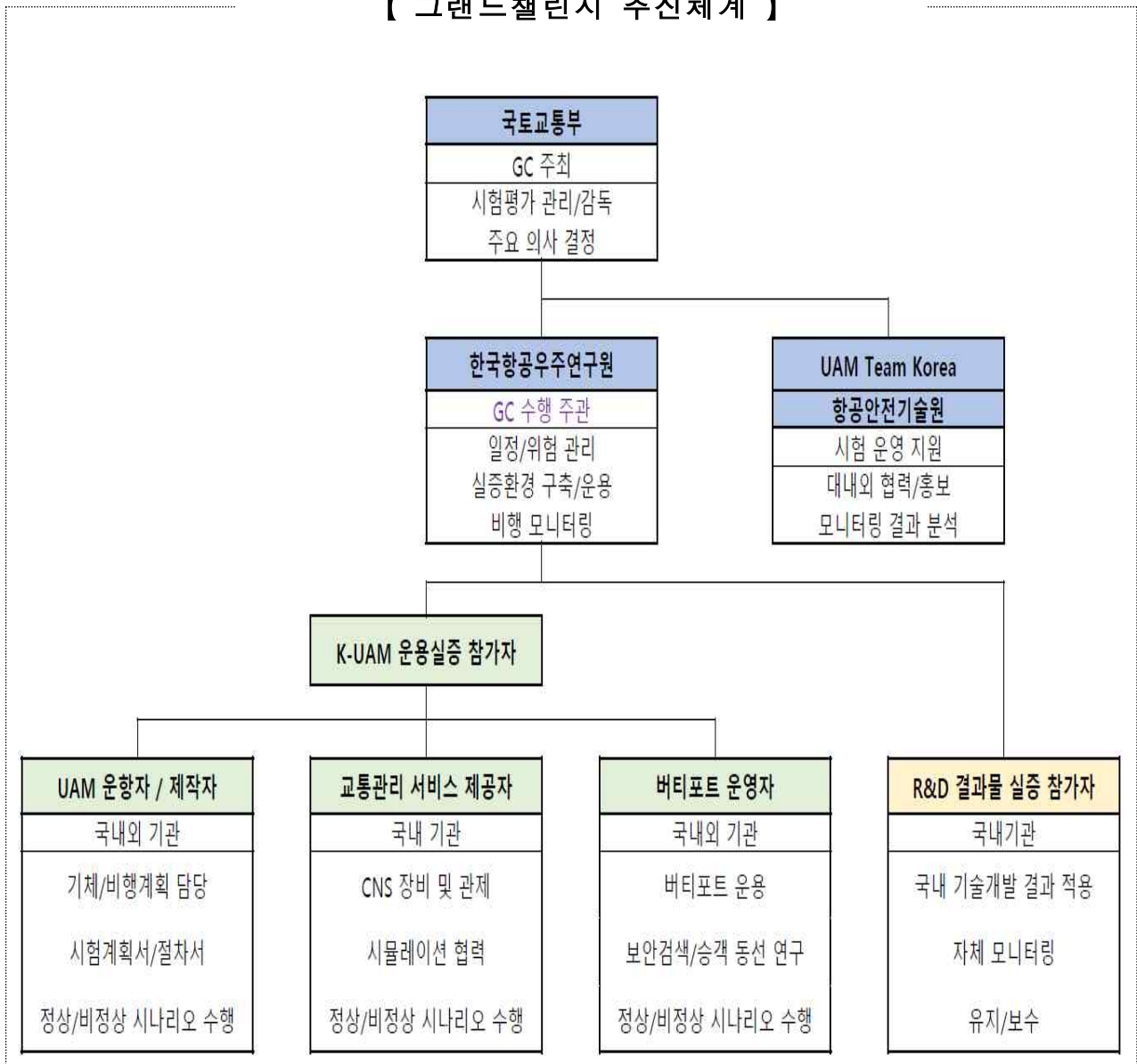
참고2

그랜드챌린지 추진체계

- (수행체계) 정부, 연구기관, R&D 결과물 실증참가자로 구성하여 주요 진행사항 및 의사결정은 UAM 팀코리아에 보고 및 논의
- 국토부(주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주관)으로 수행하며 참여 대상은 잠재적 UAM 운항자, 제작자, 교통관리제공자, 버티포트 운영자

* 드론법 제 21조 및 하위법령에 따라 항우연을 위탁기관으로 지정

【 그랜드챌린지 추진체계 】



별첨

그랜드챌린지 실증 신청기관 현황

□ 통합실증 컨소시엄 참가자 (6개 컨소시엄)

컨소시엄 명칭	주요 참여기관	실증용 항공기
롯데	(항공기) 민트에어, 모비우스에너지, 스카이웍스 등 (교통관리) 롯데정보통신, 위우너스, 지인시스템 등 (버티포트) 롯데렌탈, 롯데건설 등	eHAWK (민트에어)
LG유플러스	(항공기) 제주항공, 버티컬에어로스페이스(英) (교통관리) LG유플러스, 파블로 항공 (버티포트) 카카오모빌리티, GS건설 등	VA-X4 (Vertical Aerospace)
SKT-한화-한국항공공사	(항공기) SKT, 한화시스템 등 (교통관리) 한국항공공사, SKT, 한화시스템 (버티포트) 한국항공공사, SKT, 한화시스템 (공간·기상정보)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기상산업기술원	Joby S4 (Joby Aviation)
현대자동차	(항공기) 현대자동차, KT, 대한항공 (교통관리) KT, 대한항공, 인천국제공항공사 (버티포트) 현대건설, 인천국제공항공사	OPPAV (항공우주연구원)
켄코아 에어로스페이스	(항공기) 켄코아 에어로스페이스, AstroX (교통관리) 켄코아 에비에이션 (버티포트) 대우건설, 휴맥스 Mobility 등	Astrox PAV (켄코아에어로 스페이스)
GS ITM	(항공기) GS ITM, 다보이앤씨, 볼트라인 등 (교통관리) GS ITM, 다보이앤씨 등 (버티포트) GS ITM, 다보이앤씨, 드론시스템 등	Prosperity (Autoflight)

□ 단일분야 실증 참가자 (6개)

참여분야	참여기업
항공기	EHang
항공기	Autoflight
항공기	PLANA
교통관리	파인브이티(주관), ANRA Technologies, 로데슈바츠 한국지사, ARX, WeGoes
교통관리	ROVIGOS(로비고스)
버티포트	KAIST 항공우주공학과 차세대항공모빌리티 연구실

□ 그간 추진 경과

- 상용화 前 안전성을 충분히 검증하고, 국내여건에 맞는 운용개념 및 기술기준 마련을 위해 정부 차원의 실증사업(그랜드챌린지, GC) 계획
 - * 참가자모집(국내외 55개 기관 참여 신청, '22년5월), 1단계 인프라 구축(전남 고흥 ~'23.8월), 2단계 실증사업(노선안 협의, UAM 특례법 제정 등) 추진

□ 주요 내용

- (원칙) '민간 주도(자율·창의) - 정부 지원(제도·인프라)'
 - ① 민간 중심의 UAM 생태계 구축
 - ② 규제특례 등 과감한 지원체계 구축
 - ※ 최대한 많은 기업에 기회제공, 실증성과 우수 기업 혜택 부여 등
- (그랜드챌린지) GC-1단계는 신청기관 전체 대상(컨소시엄 6개, 단일분야 6개) 실증, GC-2단계는 1단계(GC-1) 통과 컨소시엄으로 제한
 - (GC-1, '23.8~'24.12)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고흥)에서 기체 안전성 확인, 운용 시나리오(정상·비정상 등) 보완, 교통관리 등 통합운용성 테스트
 - (2단계, '24.7~'25.6) 실제 준도심·도심에서 조종사가 탑승(특별감항 증명 획득 必)하여 운용 환경소음 측정 및 통합 운영성 검증
 - ☞ 세부 여건(입지 여건, 연계교통, 주민수용성 등) 검토, 관계기관 협의, 전문가 평가 등을 거쳐 세부 버티포트 입지 결정('23.3)

□ 향후 계획

- (GC-1) 협약서(국토부-항우연·기술원) 체결('23.1), 실증 개시('23.8~)
- (GC-2) 실증노선 확정('23.3), 인프라 구축('23.3~'25.3) 등 실증 준비
 - ※ 원활한 실증 지원을 위해 UAM법 조속 제정('23.上)